

임성재, PGA 투어 신인상 강력 후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한국인 최초 신인왕에 도전하는 임성재(21)가 미국 주요 골프매체 '톱'을 장식했다. 이례적으로 임성재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시즌 초반 경쟁자 캐머린 챔프(미국)가 주요 뉴스를 장식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지난 26일 미국 골프매거진은 이날 임성재와 인터뷰를 게재하며 "임성재가 그의 PGA투어 첫 시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골프닷컴도 이날 올 시즌 PGA 투어 신인상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임성재를 집중 조명했다. 골프닷컴은 "2018년 임성재는 웹닷컴투어(2부에서 상금왕을 차지했고, 올해 PGA 투어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21차례 대회에 나서 톱7에 5차례 들었다. 페덱스컵 포인트에서도 그는 25위에 올라있다"며 임성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임성재는 지난 시즌 PGA 웹닷컴(2부) 투어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를 차지하며 정규투어로 올라왔다.

임성재는 신인상 경쟁에서 챔프보다 한 발 더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 시즌 거의 모든 대회에 출전하는 강행군을 펼치면서도 '톱10'에 6번 드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 10개 대회서 8번 본선에 진출했고 '톱10'에도 한 번 들었다. 반면 그의

경쟁자인 챔프는 최근 투어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 10개 대회에서 기권 포함 컷 탈락 8번이 전부다. 그나마 컷을 통과한 2개 대회 성적도 본선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PGA 투어 신인상은 시즌 최종전이 끝난 뒤 선수들의 투표로 정해진다. 동료 선수들에게 시즌 내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챔프는 시즌 초반 샌더슨팜스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나 리더보드에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다.

PGA투어 동료들도 임성재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애론 와이즈(미국)는 "임성재는 부드러운 테이크 어웨이와 스윙을 가지고 있다"며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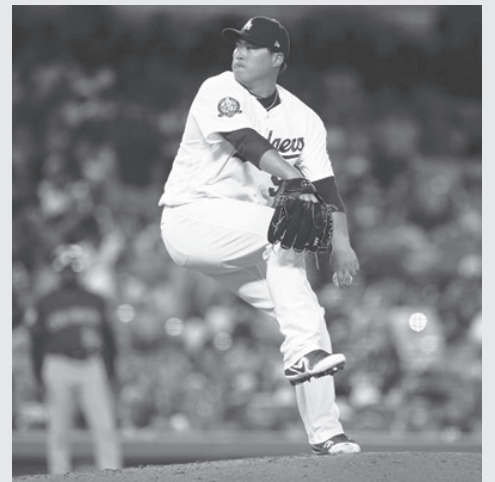
2019 프레지던트컵 단장을 맡은 어니 엘스는 "임성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멀리 치고 그린 주변 플레이도 좋으며 견고한 퍼트 실력까지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골프매거진은 "엘스가 이미 임성재를 프레지던트컵 일원으로 점찍었다"고 했다. 우승한 번이면 신인상 레이스에 쐬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프레지던트컵은 12월 9~15일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장에서 열린다. 프레지던트컵은 포인트 랭킹에 따라 각 팀당 10명이 자동 선발되고, 나머지 2명은 단장의 선택에 따라 출전이 결정된다. 이날 현재 포인트 랭킹에서 임성재는 87.43점으로 14위에 올라있다.

MLB.com소속 기자들, 류현진 사이영상 압도적 지지

류현진(32·LA 다저스·사진)이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있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소속 기자 35명이 직접 뽑았기에 더 의미가 있다.



지난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전날 "사이영상에 대한 최신 리더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다. MLB.com에서 근무하고 기자 35명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예상 수성자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류현진은 27명의 기자들의 1순위 지목을 받았다. MLB.com은 "류현진은 아주 완벽에 가깝다. 아니, 정말 완벽하진 않다."는 농담까지 섞으며 "다저스가 2년 전 왼쪽 어깨 문제로 류현진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다저스 구단 역사상 11번째로 긴 32이닝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또 MLB.com은 "류현진의 삼진/볼넷 비율이 15.00으로 아주 미쳤다. 99이닝을 던졌는데, 볼넷 6개와 탈삼진 90개를 기록했다. 또 11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호투를 이어가고 있

다. 이 기간 평균자책점은 0.80"이라고 더했다.

류현진에 이은 2위는 맥스 슈어저(워싱턴)였다. 슈어저에게 총 8명의 기자가 1순위 표를 던졌다. "류현진과 나란히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완성했다. 특히 6월 4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0.93으로 매우 좋다"고 짚었다.

3위는 루이스 카스티요(신시내티)에게 돌아갔지만, 단 1명의 기자에게도 1순위 표를 받지 못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는 저스틴 벨런더(휴스턴)가 류현진보다 많은 30개의 1순위 표를 얻었다. 찰리 모튼(탬파베이)과 루카스 지올리토(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벨런더의 뒤를 이었다.

RE/MAX
DIAMOND
BEST REALTOR® EVER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The REALTOR You Can **TRUS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